



발행처 | 한국자유총연맹(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발행·편집인 | 박종환
등록일 | 2010년 4월 21일

KFF 뉴스

제197호 <월간·등록번호 서울 아 01215>

www.koreaaff.or.kr

2019년 8월 16일 금요일 | Tel. 070-7122-8057

“아베정권 경제침략, 침착·단호하게 대응해야”

자유무역 파괴·경제침략 아베정권 규탄대회



◇박종환 총재를 비롯한 규탄대회 참가자들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 철회’ 등을 담은 결의문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 이하 자총)은 8월 13일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부 핵심간부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 파괴·경제침략 아베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자총은 아베 정권의 규제 조치가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지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규범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유무역의 촉진’ 선언을 아베 정권 스스로 짓밟는 것이기에 규탄 대회를 마련했다.

규탄발언대에 선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의젓하게 합리적 논리를 갖고 아베 정권의 부당한 조치를 전 세계에 알리자”고 말했다.

박종환 총재는 대회를 통해 “우리는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에 맞서 침착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광복절을 이틀 앞둔 오늘, 우리의 함성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자총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 국민의 선린 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고 ‘NO! 일본’이 아닌 ‘OUT! 아베’라는 표현으로 아베 정권의 오만을 지적했다. 규탄대회에 이어 회원들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한 조치 즉각 철회 △한·일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교류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제16회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성료

동두천고 임재현·여명인 학생 대상 수상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8월 8일 자유센터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산림청, 동국대학교의 후원으로 제16회 전국 고교생 토론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이날 영예의 대상은 동두천고등학교 임재현, 여명인 학생이 수상했다.

7월 시·도 예선 대회를 거쳐 선발된 지역대표 16개 팀은 찬·반 역할을 주춧하여 토론하는 ‘아카데미 방식’으로 ‘가짜뉴스 방지법 제정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종환 총재는 대회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한 여러 주장 속에 사회통합과 국민복지라는 시대정신을 실현하는 길이 무엇이고, 뉴스와 미디어의 공공성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깊이 있는 고민과 열띤 토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수상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국회의장상): 동두천고 임재현·여명인 △금상(행정안전부장관상): 한국고원대부설고 변서현·김주미 △은상(동국대 총장상, 산림청장상): 부산외국어고 채준·윤대경, 인천하늘고 권현영·송호진 △동상: 인천하늘고 조용준·김태원, 하나고 김은서·박지연, 삼성여자고 고유나·신민경, 현대청운고 하민주·문윤재.



결 의 문

자유무역 파괴·경제침략 아베정권 규탄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아베 정권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 규제강화에 나선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규제 조치는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지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규범에 정면으로 거스르며, 지난 6월 일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유무역의 촉진’ 선언을 스스로 짓밟는 것이다.

특히, 아베 정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표면상 이유로 “국가 안전보장 차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한일협정 이후 60여 년간 이어

져 온 양국의 우호 관계를 뿌리째 뒤흔들고 더구나 한미일 3국의 협력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아베 정권이 실질적으로 노리는 것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이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기어코 가로막겠다는 속셈이 명백하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질서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결국 일본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최대 국민운동단체로서 350만 회원과 함께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나. 아베 정권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아베 정권은 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을 위해 민간교류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아베 정권의 도발을 오히려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아 극복하고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 8. 13.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

총재 박종환
350만 회원 일동